

## 요골동맥을 이용한 관상동맥우회술

부천시중병원, 흉부외과

나찬영·박철현·이해영·김욱성·홍민수·심재천·김응한·  
정철현·정윤섭·한재진·라명훈·박국양·이영탁·박영관·홍승록

요골동맥을 이용한 관상동맥우회술은 1970년대초 처음 도입되었으나 요골동맥 연축(spasm)에 의한 이식편의 부전으로 사용이 중지되어 오다가 1980년대 후반  $Ca^{++}$ -blocker 등 새로운 연축 방지제의 개발과 요골동맥 채취(harvesting technique)의 개선으로 다시 사용하게 되었다.

저자들은 1994년 10월부터 1995년 7월까지 총 36례에서 요골동맥 자유이식편을 이용하여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하였다. 요골동맥이식편의 원위부 문합장소는 좌전하행지(LAD) 2개소, 사선지(Diagonal) 18개소, 둔변연분지(Obtuse marginal) 33개소, 우관상동맥(RCA) 5개소로 분포하였다.

좌측 내흉동맥을 사용한 경우는 34례였으며 순차적 문합(sequential anastomosis)은 26례였으며 총 문합수(114)에 대한 동맥이식편수는 88례로 77%를 나타냈다. 또한 13례(36%)에서는 모든 이식편을 동맥이식편으로 시행하였다. 관상동맥 우회술과 병행한 술기로는 동맥내막 절제술(endarterectomy) 14례, 우관상동맥 포편성형술(RCA patch angioplasty) 3례, 좌전행지 포편성형술 1례, 승모판막성형술 1례, 심근경색후 중격파열봉합 1례였다.

합병증으로는 요골동맥을 채취한측의 엄지손가락의 감각이상(2), 술후출혈(1), 저심박출증으로 심실보조장치(1) 등이 있었으며 이중 좌심실 보조장치를 시행한 1례에서 사망하였다. 조기추적 관상동맥 조영술은 11례에서 수술후 79일에서 210일 사이 평균 126일 시행한 바 모두 양호하게 개방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기타 다른 환자에서는 협심증의 재발은 없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직 증례의 부족 및 추적기간이 짧아서 요골동맥의 우월성을 입증할 수는 없으나 단기적으로는 만족할 만한것으로 사료된다.